

# “근로시간 단축시 6.1명 인력 부족”

## 중소기업중앙회, 500개 업체 대상 조사...기술·기능직 최다 “20.3% 생산 차질 예상...임금 月 247.1만원→220만원 감소”

중소기업계에서 근로시간 단축 이후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5일부터 5월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부족한 직종은 기술·기능직이 61.3%로 가장 많았다. 규모가 클수록, 제조·공업보다 도소매·서비스업이 인력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응답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현재 대비 20.3%의 생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자 임금은 현재 월평균 247.1만원에서 단축

후 평균 22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준수 곤란’이 3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9.0%), ‘신규인력 채용으로 총인건비 상승’(15.8%), ‘기존 직원들 임금 보전에 따른 인건비 부담 가중’(11.2%), ‘노사관계 악화 우려’(5.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을 고려한다’(25.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별다른 대책 없음)’라는 응답은 20.9%로 조사됐다.

이러 ‘공정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16.9%), ‘기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13.8%), ‘용역·아웃소싱 등 사업 외주화’(10.2%), ‘기업분할을 통한 적용시기 추가 유예’(8.4%)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시 가장 필요한 정부지원책(복수응답)은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연근무제를 선택한 기업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업무 특성상 불필요하거나 적용이 불가능’이라는 응답이 90%에 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최대 6개월 단위는 28.4%, 현행 최대 3개월 유지는 18.4%로 조사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고, 신규 충원도 원하는 만큼 하기 어려워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 기아차, ‘2019년형 스팅어’ 출시

### 고급사양 확대·가격인상 최소 판매 가격 3570만~5030만원

기아자동차가 디자인 고급화와 고급 사양을 확대 적용한 2019년형 스팅어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텅어는 기아차 최초의 프리미엄 퍼포먼스 세단으로 2019년형 모델은 디자인의 고급감을 강화하고 고급 사양을 확대 운영한다.

기아차는 2019년형 스팅어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 위해 리어 LED 터시그널 램프, 삼리스 플로팅 타입 8인치 내비게이션, 여섯 가지 색상의 인테리어 무드 조명 등을 신규 적용했다.

또 주력모델인 플래티엄 트림에 리얼 알루미늄 콘솔 어퍼 커버와 메탈 인서트 도어 가니쉬 등을 기본 적용했다.

엔트리 트림에도 이 같은 고급 디자인 사양을 ‘스타일 패키지’로 마련해 트림에 관계없이 모든 고객들이 스팅어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감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3.3T 모델에는 유채색 계열의 마

이크로 블루 컬러를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특징이다.

기아차는 지난 1년동안 스팅어 고객을 분석해 고객이 선호하는 고급 사양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사양을 도입했다. 그 결과 전차식 변속기 노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고급 편의 사양이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됐다.

또 서버형 음성인식 시스템 ‘카카오톡(i)’이 적용된 UVO 3.0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돼 모든 스팅어 고객에게 5년간 기본 제공된다.

기아차는 스팅어에 특화된 커스터마이징 패키지인 ‘리얼 카본&알루미늄 패키지’와 ‘드레스업 패키지’ 두 가지의 신규 도입한다.

스텅어의 판매 가격은 ▲2.0T 모델 3570~3840만원 ▲2.2 디젤 모델 3790~4090만원 ▲3.3T 모델은 단일 트림으로 5030만원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고급사양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도 높였다”며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스팅어의 상품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판매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내 빙과시장 위축 불구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오히려 ‘성장세’ 유지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은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님스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매출액은 2015년 1710억원에서 지난해 1760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이스크림 전체 매출 규모(식품산업통계정보 기준)는 2조1844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16.6% 감소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유아 인구 감소와 커피, 음료 전문점 등 대체제 성장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는 오히려 고급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젊은 층은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구매력을 갖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아이스크림으로 유기농이나 보존료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제품을 선호하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업체들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마케팅과 매장 확대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뉴시스

## 광주신세계, 가정의 달 매출 ‘순풍’ 이어간다

### 해외 유명브랜드 시즌오프 돌입



가정의 달 5월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해외 유명브랜드 시즌오프에 돌입한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가정의 달 5월(5/1~5/23) 매출을 집계한 결과 해외 유명브랜드 부문 매출은 지난해 동기기간에 비해 31.8% 신장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해외명품 33.3%, 해외여성선템포러리 19.7%, 해외남성선템포러리 27%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불황 속에서도 이처럼 높은 신장률이 나타난 원인은 지난해보다 짧아진 연휴로 인해 국내에 머무르는

고객이 백화점으로 몰린 것과 가치 소비 트렌드에 따라 해외 유명브랜드를 구입하는 연령대의 폭이 넓어진 점이 꼽힌다.

지난해 5월의 경우 4월 마지막 주말부터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최장 11일을 쉬는 황금연휴로 가족과 함께 장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이 많았다. 이로 인해 백화점소매가 기대보다 덜 몰렸고 해외 유명브랜드의 매출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올해는 연휴(5/5(토)~5/7(월), 7일은 어린이날 대체공휴일)가 상대적으로 짧아 국내에 머무르는 가족단위 고객들이

백화점으로 몰렸고, 선물 수요도 함께 높아지면서 매출 역시 호조를 보였다.

저렴한 상품을 다량 구매하기 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하면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2~30대 젊은 고객의 해외 유명브랜드 구매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세를 몰아 광주신세계는 25일부터 시즌 종료(재고 소진시)까지 본격적인 ‘해외 유명브랜드 시즌오프’에 돌입한다.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 박인철 팀장은 “경기침체 속에서도 연휴나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인해 해외 유명브랜드의 매출이 대폭 신장하면서 전체적인 5월 백화점 매출의 신장세를 이끌었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다양한 해외 유명브랜드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시즌오프를 통해 수요를 선점하고 6월까지 매출 신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컨템포러리 브랜드 검색

명품보다 가격대는 낮지만 일반 브랜드보다 가격이 높은 개성 있고 트렌디한 스타일의 디자이너 브랜드를 일컫는 말

## 스포티지 부분변경모델 디자인 첫 공개

### 기아차 유럽법인, 내외관 공개...램프·휠디자인 등 세련·스포티



스포티지의 부분변경모델 디자인이 첫 공개됐다

기아자동차 유럽법인은 23일(현지시간) 유럽형 스포티지 부분변경 모델의 내외관 디자인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유럽형 스포티지 부분변경 모델은 범퍼와 램프, 휠 디자인 등이 이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스포티하게 변경된 것이 특징이다.

스포티지 부분변경 모델은 올해 3분기 유럽 및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다.

스포티지는 1993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25년만인 올해 2월 세계시장 누적판매 500만대를 넘어선 기아차의 베스트셀링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뉴시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